누명 풀린 사형수 "佛法있었기에 버텼다"

美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용의자 중 데미안 에콜스

불교봉사단체 설립자 안나 콕스에 감사 표해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이었던 데미안 에콜스〈사진〉가 수감생활 중 "불교는 한 줄기 빛이었다"고 밝혀 화제다. 사진출처=ArkansasOnline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용의자가 석방 후, "수감생활 중 불교는 내게 한 줄기 빛이었다"고 밝혔다.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사건' 은 1993년 웨스트 멤피스서 3명의 남자아이를 살인 · 유기했단 죄목으로 데미안 에콜스 ·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 · 제이슨 볼드윈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데미안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종신형에 처했다.

당시 경찰은 익명 제보자가 데미안이 사건 당일 몸에 진흙 묻은 모습을 봤다는 제보만으로 수사, 대중들로부터 '졸속 및 강압수사' 란 지탄을 받고 관료주의 · 권위주의가 빚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영화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다큐멘터리 거장 브루스 시노프스키, 조니 뎁 등 많은 유명인들이 앞장서 이들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재수사를 거쳐 최초 기소 18년 만인 2011년, 미국 아칸소 주 대법원으로부터 용의자들의 석방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의자들은 '알포드 플리' 를 인정받아 풀려났다. 알포드 플리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3명 男兒 살인 · 유기 사건
당일 '몸에 진흙 묻었다' 는 제보로
사형 · 종신형 선고… 18년 복역
"불교 없었다면 증오덩어리 됐을 것"

지역 매체 'ArkansasOnline' 은 11월 18일(현지시간) 1993년 '웨스트 멤피스 3인조' 용의자 중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18년을 복역한 데미안 에콜스를 인터뷰하고, 그가 힘든 수감자 생활 동안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안나 콕스 불교 봉사단체장을 조명했다.

데미안은 "감옥을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시간을 사형수로 지냈다. 내 어린 시절은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이었다"며 "안나 콕스는 내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절에 함께 있어줬다. 그라는 '빛의 존재' 가 없었다면 난 미움과 증오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증오덩어리로 자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 콕스는 아칸소 주 유일의 수감자를 위한 불교봉사단체 '컴패션 웍스(Compassion Works)' 설립자로 당시 복역 중이던 데미안에게 불법을 전했다. 데미안과 부인 로리 데이비스는 11월 17일 안나 콕스의 은퇴식에 참석해 감사 편지를 전했다.

데미안은 은퇴식서 "어두운 교도소에선 불자,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 모두 안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빛의 세계에서 온 대사 같았다"고 말했다.

로리는 "곁에 있든 없든, 안나에겐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부드러움이 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는 안나의 확고한 생각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하고, 또 감동시킨다"며 "그 확고함의 뿌리는 바로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안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나는 억압을 가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줄 안다"고 전했다.

이날 안나는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아칸소 주서 유일하게 교도소 자원봉사를 펼치는 불교 봉사활동 단체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허친슨 주지사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안나의 자세는 매우 감동적"이라며 "콕스 씨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다. 설립한 재단서 행한 모든 자비나눔 덕분에 수감자들은 정신적 · 감정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고 표창했다.

데미안은 "안나는 나에게 어둠에 맞서는 데는 주먹과 분노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가르쳤다. 웃음과 부드러움으로 어둠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안나의 모든 행동들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을 것이다. 교도소 벽에 갇힌 이들은 영원히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中영화 '아수라', 사상 최대 제작비 투입

할리우드 제작팀 참여… 약 1,175억 규모



중국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아수라' 의 스틸컷이 공개됐다. 주연은 중국 내 '라이징 스타' 오 뤼가 맡았다. 사진출처=Can-India

중국 영화 '아수라' 가 스틸컷을 첫 공개한 가운데, 중국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아수라' 는 불교설화에 근거한 판타지 서사극이다. 잡지 '할리우트 리포터' 는 "아수라는 고대 불교설화서 순수한 욕망의 세계를 뜻한다. 영화 속 아수라는 축생계 · 아귀계 · 지옥계의 반란으로 위협받는다"며 "알리바바 · 닝샤 · 쩐찌엔 등 대규모 영화제작사가 투자한 '아수라' 를 계기로 중국영화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영화는 1억 달러(한화 약 1,175억) 제작비가 투입, 중국 내 7곳서 촬영 중이다. 이는 올해 최대 인기작인 주성치 감독의 판타지영화 "The Mermaid (2016)' 제작비 705억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특히 중국 내 유명배우들과 할리우드 제작팀이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됐다. 주연을 맡은 오 뤼(18 · 사진)는 중국의 '라이징 스타' 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밖에 홍콩배우이자 대표커플 양조위 · 유가령 부부가 출연한다.

이번 영화서 메가폰을 잡은 장 펑 감독은 할리우드서 스턴트 코디네이터로 활약, '뉴문(2009)' , '앤트맨(2015)'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아수라' 는 감독으로서 그의 데뷔작이다.

한편 아수라는 2018년 여름 개봉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명상할 수 있다면 어디든 수행처"

美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 뉴욕 곳곳서 명상 포교



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는 교회, 아트갤러리, 해변, 길거리, 지하철역, 공원 등 그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명상클래스를 연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국의 불교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 가 뉴요커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 화제다.

'부디스트 인사이트' 는 '스트릿 리트릿(street retreat)' 이란 이름으로 뉴욕 곳곳서 명상 클래스를 연다. 지오바나 마셀리와 반트 수다소 스님이 공동창립자로, 이들은 '번잡한 뉴욕서 탈출해 평화와 고요를 찾아야 한다' 는 취지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마셀리는 "스트릿 리트릿은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명상을 할 수 있다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매주 열리는 프로그램은 교회, 아트갤러리, 해변, 길거리, 지하철역, 공원 등 그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진행된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매우 획기적인 방법으로 열리기도 한다. 지난 6월엔 공동묘지서 죽음에 대한 명상교육을 진행했으며, 9월엔 초콜릿 공장서 명상했다.

수다소 스님은 "이런 기획은 사람들에게 명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르게 하고, 나를 둘러싼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통 우리가 명상할 때 주위가 시끄러우면 우린 '저 소음만 없다면 난 명상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단지 소음 때문이 아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소음은 단지 소음일 뿐이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명상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의 길거리 수행은 사실 선수행 지도자인 버니 글래스맨과 젠 피스메이커 종단이 수십 년간 진행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디스트 인사이트의 '스트릿 리트릿' 은 수행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이 짧아 바쁜 뉴욕인들에게 더욱 적합하단 특징이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경전독송' 으로 작업효율이 올라간다고?

일본서 업무 · 공부 중 경전독송 듣기 '열풍'

경전독송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일을 하면 능률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일본 내 SNS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인터넷언론매체 '아메바뉴스' 가 11월 21일 보도했다.

트위터 등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경전독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면 능률이 오르고 이상하게 마음도 차분해진다", "뭔가 굉장한 발견을 한 것 같다. 경전독송을 듣고 있으면 뜻은 모르지만 왠지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기분이 든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 성실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작업용 경전독송 배경음악' 으로 이름 붙여진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로 능률이 오를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조금만 듣고 있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여러 명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미묘한 소리의 높낮이로 중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작업할 때 경전독송을 듣는 일은 일본 사회서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다.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경전독송처럼 일정한 리듬의 음악을 듣게 되면 뇌에 세라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에 놓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경전의 의미를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언어중추를 사용하지 않아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도 "직접 체험해본 결과 놀라운 효과를 봤다"며 "최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주성원 객원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